

지금도 각급 교육 현장에는 수많은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다. 어떤 교육과정은 소정의 기대했던 목표들을 제대로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교육과정은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들이 효과적이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언 듯 생각하면 교육을 실제로 담당한 강사의 역량에 의하여 교육과정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담당 강사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것을 교육참가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교육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 특히 강사 만족도 지표를 검토한 후, 그에 따라서 강사의 강의 유지 및 교체를 중요한 후속 작업으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을 파고 들어가면 교육과정의 성과 여부가 담당 강사의 역량 못지 않게, 교육 과정의 설계 및 운영자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의 요청을 받은 강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자에 의하여 주어진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참고하여 강의 준비를하기 때문에 교육 참가자의 요구나 조직의 맥락을 정확하게 고려한 강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공무원의 업무 관련 소통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 강의를 담당한 강사의 경우 해당 조직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사례나 실습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소통 관련 이론을 설명하는데 그치거나 부적절한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으며, 실제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서 강사 못지 않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직접 운영하는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상한다.

교육과정 개발 방법: ADDIE로부터 RP로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Public HRD

추천강사

미국에서 1970년대에 개발된 ADDIE 모형은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모형의 구성 자체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다섯 단계가 체계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은 매우 논리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ADDIE 모형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도 ADDIE 모형에서와 같이 실제 교육과정의 설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병렬적으로 혹은 순환적으로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요구분석 후 과제분석이 실행되기 보다는 요구분석과 과제분석이 대부분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요구분석 및 과제분석 모두 다 종료된 시점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요구분석과 과제분석 도중에 초기 설계 아이디어가 나오며, 이후 이 설계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수정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 설계 실제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학습자, 교육과정 설계 의뢰인, 내용 전문가 등 이론과 사용자(USER)의 요구를 조기에 반영하려는 관점이 대안적으로 대두되었다. 교육과정 설계의 동시적 진행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요구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요하게 포함시키는 접근으로서 그림 2와 같은 RAPID PROTOTYPING 방법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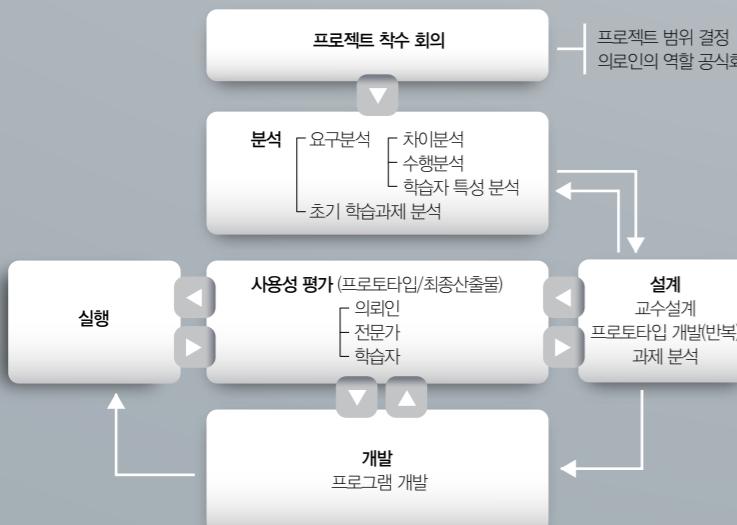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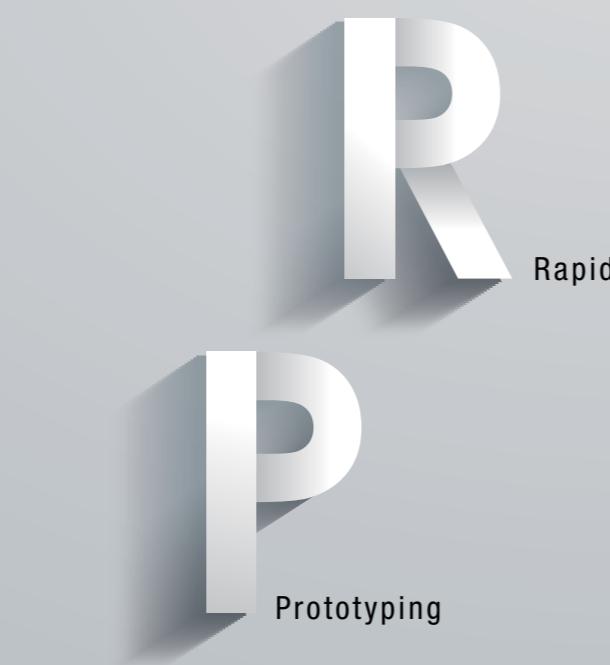


그림2 |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Rapid prototyping 방법론



RAPID PROTOTYPING 혹은 RP 방법론(임찰일, 연은경, 2015)은 분석과 설계 그리고 사용성 평가가 거의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는 바로 실제 교육과정의 사용자로서 학습자 및 의뢰인 그리고 해당 분야의 내용 전문가의 의견을 최적의 수준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다. 학습의 원리, 교수설계의 전략을 반영하려는 교육과정의 설계를 고집하지 않고, 설계된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용자가 제기하는 의견, 관점을 최적의 수준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방법론적 변화가 시도되어 왔다. ADDIE로 대표되는 교수체계설계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관점은 그 중의 하나이다. ADDIE와 같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려는 시도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과학적이며, 교육공학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ADDIE가 지니고 있는 이론적, 실제적 한계가 규명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안적 관점으로 RP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담당자 혹은 HRD 담당자의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로 더 이상 ADDIE에만 머물지 않고 RP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볼 일이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궤적: 방글라데시 테러의 사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정세의 이해와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강의해왔다. 개인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보람이 작지 않다. 주로 세상의 어두운 이야기, 테러, 난민, 내전 그리고 빈곤의 문제 등을 강의하다보면 그간 바쁜 업무로 간과하던 바깥 세상의 일에 새롭게 눈뜬 양 호기심을 이어내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국제정세란 어쩌면 특정분야 업무영역에만 한정된 주제일지 모른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국제협력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관심 있는 분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더 이상 한국은 동북아시아 한 끝에 고고하게 자기자리 여며온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부존 천연 자원도, 천혜의 휴양지도, 비옥한 곡물을 생산하는 광활한 평야도 찾기 힘든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국제사회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안보 환경은 부드럽게 돌파하기 녹록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끊임없는 도발, 미중간의 갈등 및 일본의 우경화 등 자칫 국가의 안보위기로 이어질만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미주연구부장

